

Cracked tooth의 진단과 처치

치질의 Crack이라 함은 파절과는 달리 완전히 치질이 깨어져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랑질과 상아질에 국한되어 또는 치수를 지나 치근까지 치아에 금이 가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제 증상을 Cracked tooth syndrome이라 한다. 치질의 crack은 정도가 경마하면 증상을 느끼지 못하나 계속되는 교합이 썩기작용을 하여 점차 치수쪽으로 깊어지면 crack자체의 물리적 자극, crack을 통하여 침투한 타액, 또는 세균 독소등으로 치수질환을 일으킨다. 깊어진 crack은 결국 치아의 파절을 초래한다. crack은 상하악 대구치, 상악 소구치, 상악 전치에 주로 나타난다.

증상과 진단

1. 병력: 타박이나 단단한 음식물을 씹었을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는 특별한 원인을 말하지 못하며, 과거에 불명확한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수일 내지 몇 달 이상이 경과하고 있다.

2. 저작시 동통: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없이 일견 치관은 건강하거나 또는 이차 우식증이 없는 충전물을 가지고 있다. 상하악 치아가 접촉하지 않을 때는 동통이 없으나 작은 고무조각등을 교합면의 특정교두에 놓고 교합시키면 민감한 동통을 호소한다. 상하악 치아의 교합 접촉 후 개구시 특히 심한 동통을 나타내며 또는 하악이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치아가 접촉될 때만 동통을 나타낸다.

3. Transillumination : fiberoptics 또는 밝은 빛을 여러 방향에서 치아면에 비추면서 관찰하면 검게 반사되는 cracked line을 발견할 수 있다.

4. 색소의 사용: Methylene blue 또는 Gention violet을 치아면에 도포하면 cracked line은 진한 선으로 나타나며, high-speed bur로 이 염색된 선을 삭제해 들어가면 crack의 깊이를 알 수 있다.

5. 방사선 사진과 치수 검사: 방사선 사진으로는 crack을 알 수 없다. 방사선 사진이나 시진을 통해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찬것에 시게 느끼나, 교합면의 특정부위를 특정 방향으로 percussional 때만 반응을 나타내므로 이것을 놓치면 percussion 반응도 정상으로 간주하기 쉽다.

6. 기존의 충전물이 있는 경우: 충전물의 크기 (MOD등)와 조기접촉상태, 유지를 위한 핀과 post의 상태를 관찰하고 crack의 확인을 위해서는 충전물을 제거한다.

처치

1. 대합치와의 교합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교합면 삭제를 한다. 이때 치수에 더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치수가 정상인 경우에는 교합면 전체를 덮는 onlay 또는 crown을 시행한다.

3. 치수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통법의 근관치료 후 crown을 시행한다.

4. 치근까지 연장되면서 파절의 양상을 보일 경우, 예후가 나쁘다고 판단되면 발치한다.

본 란은 치과기공소 광고란 인바 사정에 의하여 당분간 중단하게 되었음에 독자여러분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